

## 제6장 — 파도가 닿지 않는 거리

그날 아침, 리네는 당신을 부르지 않았다.

대신 하인이 조용히 전했다.

“오늘은… 일정이 없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린 건, 이 왕궁에 들어온 이후로 그런 날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훈련, 보고, 임무 준비, 기록 확인. 하루는 늘 무언가로 채워져 있었고, 비어 있는 시간은 오히려 낯설었다.

그래서 당신은 한동안 숙소 침상에 앉은 채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손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굳은살이 올라온 피부 위에 얇은 흉터들이 겹겹이 얹혀 있었다. 이 손이 이제는 칼을 쥐는 데 망설임이 없다는 사실이, 어쩐지 조금 늦게 깨달아진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짧고, 조심스러운 노크였다.

열어보니 리네가 가만히 자신을 올려다 보며 서 있었다.

언제나처럼 과한 장식은 없었고, 왕궁의 상징색인 푸른 빛과 흰빛이 열게 섞인 옷차림이었다.

왕좌에 앉아 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훨씬 더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 당신은 잘 알지 못했지만, 아마도 ‘부른 사람’과 ‘찾아온 사람’의 차이일 것이다.

“시간… 있어?”

그녀는 그렇게 물었다.

명령이 아니라, 제안처럼 들렸다.

그 미묘한 차이가 당신을 잠깐 멍청하게 만들었다.

“응, 있어.”

짧게 대답하자, 리네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그럼… 잠깐, 같이 걸자.”

---

왕궁의 회랑은 늘 조용했지만, 이날은 특히 더 조용하게 느껴졌다.

바닥 아래를 흐르는 물소리는 여전히 일정했고,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얇은 막처럼 벽에 내려앉아 있었다. 리네는 평소보다 조금 느린 속도로 걸었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 속도에 맞춰 발걸음을 줄였다. 누가 먼저 속도를 맞췄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의 걸음이 어색하지 않게 나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회랑 끝에서 내려다보이는 수로에서는 어인들이 물자를 옮기고 있었다.

무거운 상자를 어깨에 얹고 걸어가는 어인의 등에는 물방울이 흘러내렸고, 젖은 옷자락이 다리에 달라붙었다가 걸음에 맞춰 떨어졌다.

그 모습은 여전히 단단했고, 그 단단함이 이 왕국의 일상을 지탱하고 있다는 걸 당신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다.

수면 가까이에서는 인어 둘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말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입술이 움직이는 리듬과 수면 위에 생기는 작은 파문만으로도 대화의 존재는 충분히 느껴졌다.

그 중 한 인어가 고개를 들어, 아주 잠깐 당신을 바라보았다. 시선이 닿았다가, 곧 시선이 느리게 옆으로 비껴갔다.

예전 같았으면, 그건 단순한 낮가림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리네도 그 장면을 보았는지, 시선을 수로 쪽에 둔 채로 말했다.

“이곳의 사람들은… 변화에 예민해. 특히, 바다의 리듬이 어긋날 때.”

당신은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음성이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서 아무 말도 덧붙이지 못했다.

리네는 설명을 더 하지 않았다. 그녀는 늘 그렇다.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고, 대신 여백을 남긴다. 그리고  
그 여백이, 나중에 더 무겁게 다가온다.  
회랑을 지나 정원 쪽으로 들어섰을 때, 기사단의 몇몇  
단원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다.  
아직 정식 훈련 시간이 아닌 듯, 모두 가볍게 몸을 푸  
는 정도였다. 그러나 그 ‘가벼움’ 속에서도,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긴장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젠장, 또 빗나갔네.”

한 단원이 투덜거리며 칼을 다시 쥐었다.

“등신, 힘을 너무 줬잖아. 그러니까 손목이 굳지.”

“알아, 아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럼 뒤지는 거지 뭐.”

“아니까 닥쳐 좀”

말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농담처럼 위장된 진심이  
섞여 있었다.

당신은 그들을 지나치며, 몇 개의 시선을 느꼈다.

짧게 스쳐가는 시선들.

그를 향한 의문과 경계, 질투가 담긴 시선

예전에는 그것이 당연한처럼 느껴졌다.

뒷골목 출신이어서, 말수가 적어서, 너무 조용해서.

그런 이유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선들이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조심스러움.

혹은, 어쩌면 아주 미묘한 두려움.

리네는 그 시선들을 모르는 척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당신을 위로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조금만... 더 안쪽으로 갈까.”

그녀가 말했다.

정원 깊숙한 곳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

왕궁의 구조상, 이 연못 역시 바닷물과 이어져 있었고, 그래서 물은 완전히 고여 있지 않고 아주 느리게 흐르고 있었다. 수면 위에는 얇은 빛이 얹혀 있었고, 바람이 거의 없었음에도 수면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리네는 연못 가장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을 바라보았다.

당신도 말하지 않았다.

이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왕궁에서 경험한 침묵 중 가장 편안한 종류의 것이었다.

“여긴…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야.”

리네가 말했다.

“너무 조용하고....소리가 깊어서”

그 말에, 당신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보통, 이 왕궁의 조용함조차 버거워한다.

그래서 더 조용한 곳은 더더욱 피한다.

“그래도… 난 이곳이 좋아.”

그녀는 여전히 수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소리가 솔직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당신은 정확히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은 오래 귀 안쪽에 남았다.

잠시 후, 리네는 고개를 들어 당신을 바라보았다.

“점심… 같이 먹을래?”

그 말은 특별할 것 없는 제안이었지만, 묘하게 조심스러웠다.

“그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는 이미 ‘함께’라는 선택이 담겨 있었다.

---

식사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생선 수프, 빵, 소금, 따뜻한 차.  
다만, 오늘은 하인들이 조금 더 멀찍이 물러나 있었고,  
식탁 주변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다.  
리네는 천천히 식사를 했다.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

당신이 손가락을 내려놓으면, 그녀도 자연스럽게 따라  
내려놓았다.  
당신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면, 그녀도 잠시 후 차를 마  
셨다.  
그게 의도적인 건지, 무의식적인 건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리듬이, 이상하게도 편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리네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  
었다.  
“오늘… 훈련, 있어?”  
“있어. 오후에.”  
“그럼…”

그녀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말했다.  
“조금… 보고 있어도 될까.”  
그 말은 조심스러웠다.  
명령도, 요청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였다.  
“상관없어.”

당신이 그렇게 말하자, 리네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이, 이상하게 오래 눈에 남았다.

---

훈련장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땀 냄새, 흙 냄새, 금속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 늘 희미하게 섞여 있는, 오래된 피의 냄새.

교관의 목소리가 울렸다.

“집중해.”

“잡지 마. 쥐어.”

그 말은 여전히 짧았고, 여전히 정확했다.

당신은 칼을 쥐고 있었다.

손목에 힘을 과하게 주지 않은 채, 그러나 절대 놓치지 않도록.

몸이 앞으로 쏠리면, 발이 먼저 반응했다.

바닥을 구를 때, 무릎에 남아 있는 상처가 다시 조금 벌어졌지만, 당신은 그 감각을 더 이상 ‘통증’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건 그냥, 몸의 일부였다.

교관의 칼을 피해 바닥을 구르고, 그의 칼을 막아내며 호흡과 절규에 가까운 기합을 내뿜고, 그의 발길질에 복부를 얻어맞아 바닥을 구르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그의 기술을, 의지를, 모든 것을 습득해 나아갔다.

훈련이 끝날 무렵,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피와 먼지로 옷이 더러워 젖으며 숨은 평소보다 조금 더 거칠어져 있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훈련장 가장자리에서 리네가 조용히 서 있는 게 보였다.

그녀는 가까이 오지 않았다.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분명히, 당신을 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평가도, 감탄도 없었다.

그저,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의 시선이었다.

훈련이 끝나고 단원들이 흩어질 때, 몇몇은 리네를 힐끔 바라보았고, 몇몇은 당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시선들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간격이 존재했다.

“공주님이 직접 보러 오셨네.”

누군가 낮게 말했다.

“넌 진짜… 특별 대우다.”

말투는 가볍게 꾸몄지만, 그 안에는 묘한 시기와 질투, 진심이 섞여 있었다.

당신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리네는 훈련장이 거의 비었을 때, 조용히 다가왔다.

“무리… 안 했지?”

그녀는 그렇게 물었다.

그 질문이,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다.

무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무리를 하게 만들고 있는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괜찮아.”

거친 호흡과 짧은 대답.

리네는 그 말을 믿은 건지, 믿지 않은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잠깐 당신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그래도… 조심해.”

그 말 역시, 명령이 아니었다.

부탁에 가까웠다.

---

해가 기울 무렵, 왕궁은 하루 중 가장 부드러운 색을 띠었다.

수로 위의 빛은 길게 늘어졌고, 인어들은 조금 더 자주 수면 위로 올라왔다. 어인들은 하루의 마지막 물자를 정리하며 낮은 목소리로 서로를 불렀다. 기사단 숙소 쪽에서는 누군가의 웃음 소리와 욕설이 잠깐 들렸다가, 곧 잦아들었다.

당신은 회랑을 걸으며, 이 풍경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게 되었다.

이 왕궁의 일상.

이 왕국의 리듬.

이 평온함.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래서 더 불안해지는 것들.

저녁 무렵, 두 명의 단원이 당신을 찾았다.

“슬슬 준비하자.”

말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전보다 조금 더 낮아져 있었다.

“이번엔 좀… 골치 아픈 일일 것 같아.”

“그래도 뭐, 해왔던 거랑 크게 다르진 않겠지.”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당신을 똑바로 보지는 못했다.

시선은 자꾸 빛나갔다.  
당신은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을 때, 세 사람은 왕궁 외곽의 어  
둠 속으로 들어섰다.  
말없이.  
불필요한 동작 없이.

이미 여러 번 반복해온 방식대로.  
왕궁의 마지막 불빛이 등 뒤에서 점점 멀어졌다.  
회랑의 소리도, 수로의 소리도, 서서히 희미해졌다.  
그리고 그 어둠의 경계에서, 당신은 느꼈다.  
이제 정말로, 임무가 시작된다는 것을.

세 사람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기 직전,  
왕궁의 높은 회랑 위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그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리네였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부르지도, 막지도 않았다.  
한숨을 내쉬지도, 하늘을 올려다 보지도 않았으며,  
그저 세사람의 등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저,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세 사람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그녀는 한동안 그곳을 떠나지 못했다.  
바닥 아래를 흐르는 물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바다가,  
무언가를 오래 붙잡고 있는 것처럼.